

2022 대학입시의 이해



1. 대학입시의 이해1)

구분	수시	정시	
원서접수	9월	12월	
전형기간	9월~12월	1월	
지원판단 기준	학생부	수능	
주요 전형 유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전형	논술 전형 적성 전형	수능 전형
전형 방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 학생부 비교과) (+ 면접) (+ 수능 최저 학력 기준) ◆ 학생부 종합 학생부 (+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 면접) (+ 수능 최저 학력 기준) ◆ 실기 전형 실기 능력 (+ 학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전형 논술고사 (+ 학생부 교과) (+ 학생부 비교과) (+ 수능 최저 학력 기준) ◆ 적성 전형 적성고사 (+ 학생부 교과) (+ 수능 최저 학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전형 수능 (+ 학생부 교과) (+ 학생부 비교과) (+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여기서 중심 전형요소에 따라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기타 전형으로 나뉘며 정시는 수능, 실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기타 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된 전형 중 적성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이 있다.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따로 적성 전형으로 다루기도 한다.

이외에 수시와 정시의 기타 전형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고등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전형 소개나 분석을 할 때 제외된다. 또한 수시와 정시의 실기 전형은 인문·자연·예체능 모든 특기자를 포함하는 전형이지만 이 자료집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특기 전형만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19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2명, 445명을 모집한다. 이는 입시에서 매우 적은 비율로 역시 이 자료집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즉, 대표적인 전형을 보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적성 전형이 있으며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이 있다. 이 6가지 전형을 가지고 수시와 정시에 지원하게 된다. 아직 고1 시기에는 해당 전형과 중심 전형 요소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1 시기에

1) 비상교육에서 작성한 자료임.

는 각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형 요소들의 특징을 알고 각 전형 요소들을 준비하는 일종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가. 수시 전형

수시는 이제 대입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모집시기이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시를 통해 대입 정원의 77.3%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2022학년도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대입 정원의 약 70%가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부교과 전형 30% 이상 대학은 정시모집 비율을 자율로 운영하는 만큼 수시 모집의 영향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는 정시보다 앞선 9월에 지원을 마감한다. 이후 12월까지 전형이 진행되며,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서류, 논술 고사, 수능 등급과 같이 여러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 지원자들을 사정한다. 따라서 수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요소가 무엇인지 또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수시를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수시 일정

◆ 일정에 따른 준비 사항

수시는 9월에 원서접수가 마감되지만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이며,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것은 12월 말이다. 즉, 접수부터 발표까지 약 3~4개월이 걸리는 전형 기간이 매우 긴 전형이다.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9월 원서접수, 수능 전, 수능 후, 12월 합격자 발표,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이렇게 5개의 일정으로 나눌 수 있고 각 기간마다 챙겨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수시 일정별 준비사항

1. 9월 원서접수

- 담임선생님과의 수시 지원 상담 및 수시 지원(최대 6회)
- 지원 전형에 필요한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구비

2. 수능 전

- 자신이 지원한 수시 대학의 대학별 고사 기출 분석 및 대비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또는 정시를 대비한 철저한 수능 준비

3. 수능 후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및 대학별 고사 응시 유불리 확인
-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점검

4. 12월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확인 및 예비 순위 번호 확인
- 담임선생님과의 정시 지원 상담

5.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 지원한 대학의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확인
-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게 휴대폰 등 잘 소지하기

◆ 수시 준비의 시작은 고1부터

수시는 '수시로 해온 것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 쉽다. 물론, 논술이나 적성 등은 조금 다르지만 수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겪어 온 내용들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1 1학기부터 고3 1학기까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평가하는 내신을 포함하여 비교과와 서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고1부터 고3 1학기까지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수시 합격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시 준비는 고1부터라고 생각하고 내신 및 비교과 관리를 해야 한다.

2) 수시 전형 분석

수시는 대교협 기준에 따라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22학년도 이전에는 학생부교과 전형 내에 적성고사 전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은 147,345명,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은 85,168명으로 수시 전체 모집 인원의 86.5%인 232,513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 이미 학생부 내용이 완성된 재수생 또는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뛰어나거나 논술 고사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위주 전형보다 논술전형을 준비한다. 실기 전형의 경우, 외국어, 수학, 과학 등 특기자를 모집하는 전형으로 최근 SW 산업이 강조됨에 따라 SW특기자를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

◆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교과 전형의 핵심 전형 요소는 학생부교과 즉,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다. 다른 전형들보다 내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대학에 따라서 면접이나 비교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기도 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자신의 내신(점수)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의 입시결과와 자신의 내신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 합격 예측이 가능하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높은 대학은 대부분의 지방 대학과 인서울 중위권 대학들이다. 이들이 전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입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147,345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2.4%, 수시 모집 인원의 5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하여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따라서 이 전형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 등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선발과정에서 지원자를 정성평가하며 이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 발전가능성, 개인 소양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내신이 낮아도 나머지 비교과와 서류,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합격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는 전형이고 대학은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능

력이 어느 정도 우수하면서, 비교과나 면접, 서류 등을 통해 잠재능력 등도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려는 전형이다.

따라서,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경희대 고교대학연계, 건국대 KU학교추천 전형처럼 학생부의 석차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생부 등급 성적이 필요하며, 대체로 그 수준은 2~3등급 정도로 보고 있다. (물론, 입시 결과에 따라서는 4등급 이하가 합격한 사례도 있다.)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85,168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24.5%, 수시 모집 인원의 3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위권 대학의 핵심 전형으로 주요 15개교 전체 모집 인원 46,827명 중 39.29%인 18,397명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 논술 전형

논술 전형에서 논술을 반영하는 비율은 60% 이상이며, 연세대의 경우에는 논술 100%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논술 이외에 나머지 40% 미만의 전형 요소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이며,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반영되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학생부 이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논술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수능 성적에 비해 내신 성적이 낮은 중상위권 학생들이나 재학생보다 수능/논술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수생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다.

2020학년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2,146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3.5%, 수시 모집 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논술 전형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 간 4개 대학이 신설했고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서는 약 13%의 인원이 논술 전형을 통해 선발되므로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시 전형 요소 분석

◆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의 가장 큰 장점은 수시 전형 요소 중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전형요소라는 것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는 합불 예측을 하는 기준이 된다. 전년도 입시 환경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합격선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합격 카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꾸준히 내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꾸준함이라는 것이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어려움이다. 수시 원서 접수 전 2년 반 동안 치르는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망치면 끝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을 통해 한 두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학생부 교과는 꼭 학생부 교과 전형 이외에도 다른 전형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실질 반영 비율은 떨어지긴 하지만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에 반영되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정량 평가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준비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내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 학생부 비교과 / 서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부 비교과의 중요성도 커졌다. 학생부 비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를 제외한 학생부의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부에 작성된 모든 기록을 말한다. 학생부 비교과는 학기 말에 작성되는데 이때 학생부 비교과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 이외에도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문이다. 실제 학생들은 학생부 기록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이때 정리해둔 포트폴리오의 내용도 참고하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을 자신이 정리한 기억과 포트폴리오 및 학생부 기록을 연결하여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학생부 비교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활동 사실이 아니라 활동 동기와 활동 경험으로 인한 변화이다. 즉 왜 해당 활동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활동했으며,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이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이 학업능력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성장가능성, 학업 적응 능력 등이기 때문에 지원자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적응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논술

논술은 보통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나 고3에 비해 수능과 논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재수생이 준비하는 전형 요소이다.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야 한다.

논술평가 기준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용, 논리, 표현 3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술평가의 3가지 기준

- (1) 내용: 문제의 파악, 사실의 이해, 해결의 능력, 논지의 적절성
- (2) 논리: 논리의 일관성, 논리제시의 적합성, 논증방식의 타당성
- (3) 표현: 어휘의 정확성 및 풍부성, 문장의 정확성과 효율성, 글의 단위성과 유기성

인문계의 경우 철학, 인문 및 시사 등의 주제를 다루는 반면, 자연계는 과학 및 수학적인 주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문계는 언어와 사회과학, 수리 논술이 융합되고, 자연계는 수리와 자연과학 논술이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논술의 난이도는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로 인해 점점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목표 대학의 기출문제 분석 없이 무작정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 면접

면접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용하는 전형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부교과 전형에서도 단계별 전형을 통해 면접을 도입하는 대학도 있다. 면접은 성격에 따라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눌 수 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이나 서류에 기재된 활동에 대한 심화 질문을 하는 면접이다. 대표적인 서류 확인 질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나요?”, “해당 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과정으로 극복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등이 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이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사외적인 이슈가 해당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교과 또는 대단원 통합형 지문이 출제된다. 고3 학생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만,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기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면접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수능

수능은 정시에서 매우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수시에서도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서류나 면접 등에서 합격권 내의 점수를 받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해야하며, 수시 전형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수능 공부에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야한다.

나. 정시 전형

정시에는 수능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 등이 있지만, 수능 전형이 비중이 매우 크다. 즉, 수능이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대부분 자신이 받은 수능점수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며, 수시에 비해 합격 가능성 예측이 명확한 편이다. 정시 선발 규모는 2018학년도 92,652명(26.3%), 2019학년도 82,972명(23.8%), 2020학년도 79,090명(22.7%)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통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시 규모는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 정시 일정

정시는 수시와 달리 선 수능 시험, 후 정시 지원의 전형이다. 당해 연도 수능 모의평가는 6월과 9월에 시행되고 수능 시험 접수는 8월 말~9월 초에 진행된다. 수능 시험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시행되고 수능 성적 결과는 12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표된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월 말, 미등록 지원합격자 발표는 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대학별로 정시 요강 발표는 9월에 발표되지만 최종 정시 모집단위와 인원은 수능 성적 결과

발표 후 수시 합격자 발표 및 미등록 층원 합격이 마무리 된 12월 말에 결정된다. 최종 인원이 발표된 직 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지원 대학을 설정한 뒤에 최종 모집단위와 인원을 보고 정시 원서접수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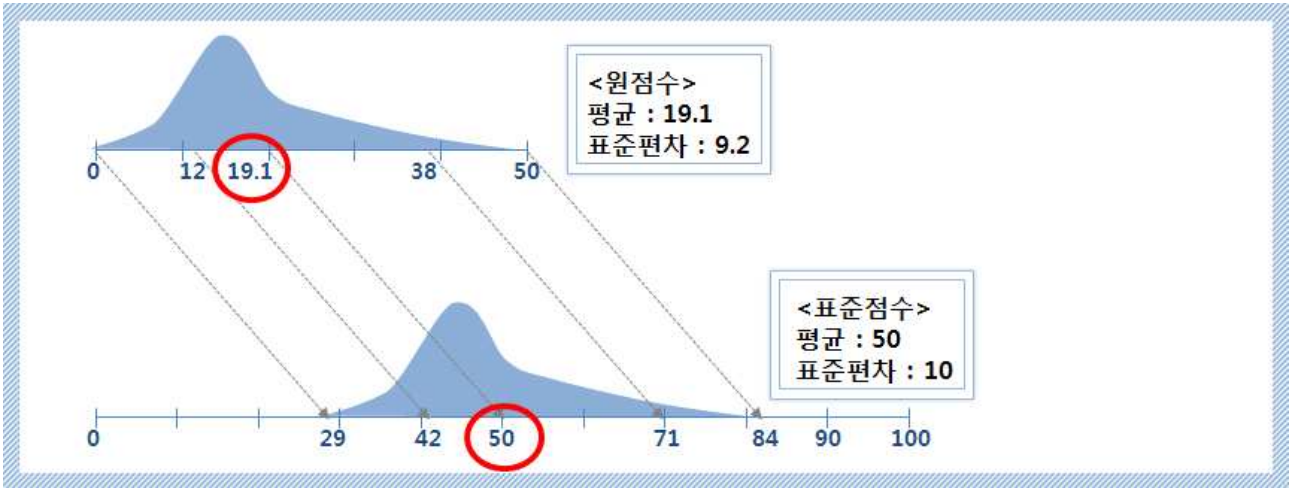
2) 수능 활용지표

정시에서 각 대학마다 수능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수능을 치르고 난 뒤에 가채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수를 원점수라고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영역 100점 만점, 탐구 영역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록되는 점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며,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만 제공된다. 2022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 반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사, 영어 영역과 동일하게 등급만 제공된다. 대학들은 성적표에 기록된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백분위 또는 등급을 이용한 변환점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알아볼 때 원점수는 수능 시행일과 성적 발표일 사이에 정시 지원 가능 수준과 대학별 고사 응시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는 각 대학에서 활용하는 계산식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년도)		
12345678	홍길동		99. 03. 01	여	대한고등학교(1)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과학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영역 독일어 I
			가형		화학 I	생명 과학 II	
표준점수		133	114		64	62	65
백 분 위		98	69		91	87	98
등 급	1	1	4	1	2	3	1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영역별/과목별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점수이다. 영역별/과목별 시험의 난이도, 응시집단의 수준이 반영되는 점수이다.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생 집단의 성격과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역별 성적 분포 상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동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백분위

수능 성적을 처리하는 평가원 기준으로 백분위는 영역/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이다. 즉, 특정 영역/과목의 어떤 학생의 백분위가 80이라고 하면, 해당 영역/과목 내에서 해당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80이라는 의미이다. 백분위가 99라고 하면, 매우 높은 점수이며, 1이라면 매우 낮은 점수가 된다.

$$(\text{백분위}) = \frac{(\text{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수}) + (\text{동점자수}) / 2}{(\text{수험생 전체})} \times 100$$

◆ 등급

표준점수 기준 석차 백분율에 따라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 체제이다. 전체 응시생의 상위 4%까지 1등급으로 1등급을 제외한 응시생의 상위 7%까지 2등급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9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 받으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70	77	89	96	100

◆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는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탐구 영역의 점수를 반영할 때 사용하는 점수이다. 보통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의 표준점수가 부여되며, 시험의 난이도와 응시 집단의 성격과 규모가 서로 다른 탐구 과목의 유효리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A대학의 백분위 92점에 대한 사회탐구 변환표준점수가 65점이고 A대학에 지원한 학생의 사회탐구 과목, 한국지리의 점수가 표준점수 63, 백분위 92, 등급 2라면 해당 대학에서는 한국지리의 표준점수를 63점이 아닌 65점으로 반영한다.

3) 모의고사 성적표 활용법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수능모의고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모의고사는 수능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험으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평(전국연합학력평가),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평(수능 모의평가), 사설 입시업체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학평, 모평 등 모의고사에 응시하면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이 성적표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자신의 성적만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이용해서 자신이 수시에 유리한지, 정시에 유리한지를 확인하거나 전국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수시 / 정시 유불리 비교

수시와 정시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등급과 모의고사 성적표에 있는 등급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다만, 고3 수시·정시 지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선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학생부와 모의고사 등급을 비교해보는 이유는 자신이 어느 전형 요소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일회성 비교에만 그치지 말고 정기적인 비교를 통해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 학생부와 모의고사 등급 비교로 보는 수시 / 정시 유불리 비교

판단 기준	우선 지원 순위 및 지원 TIP
학생부 > 모의고사	수시 모집 우선 고려, 수시 적정 또는 안정 지원 고려,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달성이 관건
학생부 < 모의고사	정시 모집 우선 고려, 수시 상향 또는 적정 지원 고려
학생부 ≈ 모의고사	수시와 정시(5:5 또는 6:4) 비중 고려

◆ 배치표 위치 확인 / 배치점수와 비교

학생부와 모의고사 등급의 비교를 통해 수시와 정시의 유불리를 알아보는 것 이외에도 모의고사 성적표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전국 단위 기준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보통 이런 비교는 배치점수라는 국어, 수학, 탐구의 종합 점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대개 학평이나 모평이 시행되면 여러 입시 기관들이 해당 시험을 분석하여 배치점수 또는 지원 가능점수 자료를 발표한다. 해당 자료가 작성된 기준(국수탐 표준점수의 합, 국수탐 백분위의 합 등)에 따라 자신의 점수를 합산한 뒤에 자신의 점수와 배치점수를 비교해보면 지원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 대학을 설정할 수 있다.

2.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

가. 대입전형구조 개편

- 1) 학생들의 제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
- 2)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

나. 수능 체제 개편

- 1)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 수학 I,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 수학 I, 수학 II, 확률과통계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 : 수학 I, 수학 II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 I·II)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 I·II)
	직업계 : 직업계열 중 택2 * 직업 :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당 2씩)	직업계 : 전문공통(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 6과목 (성공적인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9과목 중 택1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 음영은 '절대평가 적용 과목'

- 2)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하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유지
- 3) 과목 풀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실시

2021 수능		⇒	2022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국어, 수학, 탐구

- 4)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

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1) 학생부 기재 개선

순	항목	현행	개선	
1	인적사항	▪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 학적사항과 통합 ▪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2	학적사항	▪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 인적사항과 통합	
3	출결상황	▪ 질병·무단·기타	▪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4	수상경력	▪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 대입자료로 제공	▪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 항목 삭제 ▪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특기사항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명, 활동내용 등을 특기사항란에 기재	▪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청소년단체)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진로활동	▪ 진로 관련 활동내용 및 상담내용 등 기재	▪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기재분량	▪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8	교과학습 발달상황	▪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 현행 유지	
9	자유학기활동상황(중)	▪ 특기사항 입력	▪ 현행 유지	
10	독서활동상황(중·고)	▪ 제목과 저자만 입력	▪ 현행 유지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기재분량: 1,000자 ▪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 기재분량 축소: 500자 ▪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2) 전형 서류 개선

- 대필·허위작성 등의 우려가 있으나,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개선

※ 자기소개서 서식 개선

- (기재방법) 사실 중심 개조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서술형으로 기술
- (문항통합) 재학기간 중 각각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도록 한 1번·2번 문항은 통합
- (문항개선)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사례'를 쓰도록 한 3번 문항은 학생의 개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방식 개선
- (글자수 제한) 1·2번 통합문항은 1,500자 이내로, 3번 및 4번 자율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글자수 제한

▷ (기존) 4개 문항 5,000자 ⇒ (개선)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 면접,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0점 처리(정원 미달 시에는 합격 가능)하던 것을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 교사추천서는 폐지

라. 대학별 고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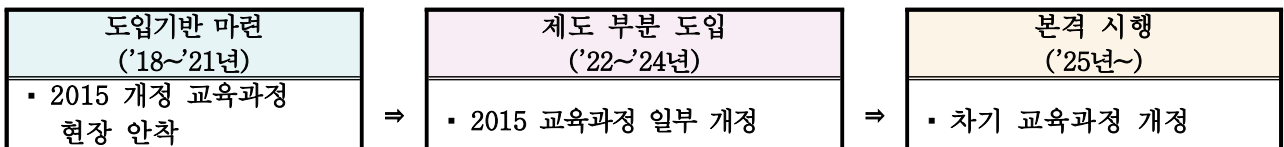
1) 면접·구술고사 개선

-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모집정지 등 엄중 제재
- 대입 블라인드 면접
 - ※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

2) 지필고사 개선

-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 추진
-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마. 고교학점제 도입 및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
 - ※ (대입 정보제공 안)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 원점수·평균·성취도·수강자 수 제공, 성취수준별 학생비율 추가 제공

[학교생활기록부(현행)]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과목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수준 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고전 읽기	4	95/70	A (532)	A (32.4%)) B (30.9%)) C (36.7%))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

구 분	'20학년도 이전	'21학년도	'22학년도 이후
수능위주전형 비율	대학 자율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유도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재정지원과 연계 (학생부교과 30% 이상 대학은 자율)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대학 자율 (선발방법 취지 고려)		
수능 출제범위	국어 : 화법과작문, 독서, 문학, 언어 수학(가) : 수학 I, 확률과통계, 미적분 수학(나) : 수학 I, 수학 II, 확률과통계 영어 :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 한국사 탐구 :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국어(공통) : 독서, 문학 국어(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 1 수학(공통) : 수학 I, 수학 II 수학(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 영어 :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 한국사 탐구(일반) : 계열구분없이 택 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 탐구(직업) : 성공적인직업생활 + 5과목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 1
수능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 EBS 연계율	70% (영어 일부간접연계)		50% (간접연계 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19학년 고1부터 적용('22학년도 대입에 반영)		
자기소개서 개선	현행 서식		서식 간소화 및 개선
교사추천서 폐지	유지		폐지
평가과정 투명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권장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평가기준 공개 확대 유도 부정·비리 제재 근거법규정 신설
선발결과 공시	대학별 고교 유형별 합격자수 공시		대학별 대입전형별 고교 유형·지역별 합격자수 공시
면접·구술고사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폐지